

## 연세대 15인문 모의 논제 1번

제시문 (가),(나),(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간의 관계에 대해 공통적으로 서술한다. 하지만 개인이 행복을 만드는 방법,행위,그리고 개인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의하여 구별된다.

제시문 (가)는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타인의 행복과 상관이 없다고 여긴다. 단지 개인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 혹은 신분에서 맞는 일을 하려는 노력만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노예는 노예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주인이라면 노예로 태어난 이들의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 규범에 순응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서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은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복은 오로지 개인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기인할 뿐, 타인의 행복과 서로 주고받는 영향은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행복과 독립적인 개인의 행복을 주장한 제시문 (가)와 달리, 제시문 (나)에선 타인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 제시문 (나)의 남편이 출유하는 것은 남편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아내의 행복을 감소시킨다. 반대로 아내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연을 주장하는데, 이는 아내의 행복을 늘리고 남편의 행복을 줄인다. 한편 아내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사회규범을 탈피하려 한다는 점에서도 (가)와 반대된다. 이처럼 제시문 (나)에서는 서로 의존적인 개인의 행복들을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서로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 관계로 서술한다. 제시문 (다)의 사회 구성원들은 공리적 선택에 따라 개인의 쾌락, 즉 행복을 증진시키려 한다. 이는 타인의 행복과는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다. 그러나 제시문 (다)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 전체의 쾌락은 구성원들의 쾌락을 더해가며 구성된다는 점에서는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에 종속될 수 있는 모습도 보인다.

## 연세대 15인문 모의 논제 2번

제시문 (라)의 도표에서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평균적인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가, 왼쪽은 평균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가 위치한다. 또한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국가의 평균 행복도에서 많은 사람이 멀리 그리고 높은 행복도부터 낮은 행복도까지 고르게 분포된다. 반면 아래쪽은 행복도의 평균적인 값에 가까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군 B는 평균적인 행복도가 높고 행복도의 편차가 크다. 반면 국가군 C는 평균적인 행복도가 낮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행복도를 가진다.

우선 제시문 (나)에서는 국가군 C를 이상적인 국가군이라고 볼 것이다. 제시문 (나)는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인 행복을 가지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일정량의 행복을 사람들이 나눠 갖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제시문 (나)는 평균적으로 높은 행복도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 간 느끼는 행복의 편차가 큰 국가군 B를 지양할 것이다. 그 대신, 평균적인 행복도는 낮아도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 차이가 작은 국가군 C를 선호할 것이다.

반면,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국가군 B를 이상적인 국가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 국민의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군 C의 국가들보다는 국가군 B의 국가들의 국민이 느끼는 행복의 총량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전체의 행복의 양을 중시하는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행복도의 편차가 낮지만 평균 또한 낮은 국가군 C보다는, 비록 행복도의 편차가 크더라도 평균적인 행복도 자체가 높은 국가군 B를 더욱 선호할 것이다.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 간의 느끼는 행복도의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공동체의 이익에 해악을 줄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들의 행복도 편차가 큰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길 것이다.

이와 같이 행복도의 차이가 심한 것을 지양하는 제시문 (나)는 행복도 간의 편차가 적은 국가군 C를, 공동체 전체 행복의 총량을 우선시하는 제시문 (다)는 행복도의 평균이 높은 국가군 B를 택할 것이다.